



맨유 박지성이 1일(한국시간) 열린 아스널과 원정경기에서 후반 7분 올시즌 첫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시즌 첫 골... '부활' 시동

'환상 드리블' 아스널 3-1 격침 선봉 평점 7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마침내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박지성은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아스널과 원정경기에서 왼쪽 윙 포워드로 선발 출전해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7분 추가골을 넣었다.

출전이 들쭉날쭉했던 박지성으로서 정규리그 9경기만에 나서 터트린 올 시즌 첫 골,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맛을 본 것은 지난해 5월2일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2-0 승) 썬데이 이후 무려 9개월 만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칼링컵 준결승 2차전에서 결장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박지성이 골 부담을 시원하게 털어낸 한 관이었다. 퍼거슨 감독은 루니를 최전방 원톱에 세우고, 박지성과 루이스 나니를 좌·우 측면에 배치한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맨유가 2-0으로 앞선 후반 7분 박지성은 에타게 기다렸던 시즌 첫 골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하프라인에서 골을 잡은 박지성이 혼자 차고 들어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골키퍼 알무니아와 일대일로 맞섰다. 박지

성은 직접 오른발로 차 아스널 골문을 열 어줬었다. 드리블에서 마무리까지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로 오랜 골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다.

맨유는 이날 전반 33분 상대 골키퍼의 자책골과 전반 37분 웨인 루니의 추가골에 이어 박지성의 썬데이 토타스 베르 마엘렌이 한 골을 넣은 아스널에 3-1로 이겼다.

2위 맨유는 이날 승리로 17승2무5패(승점 53)가 돼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첼시(17승3무3패·승점 54)를 1점 차로 바짝 추격했다. 맨유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었던 아스널은 3위(15승4무5패·승점 49)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박지성이 종료 직전 발렌시아와 교체 돼 그라운드를 빠져나올 때 맨유 응원단

박지성 일문일답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골을 넣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늘 득점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박지성이 1일(한국시간) 아스널과 원정경기에서 2009-2010시즌 첫 골을 넣고 나서 소감과 각오 등을 밝혔다.

다음은 박지성과 일문일답.

-시즌 첫 골이다. 오래 기다렸을 것 같은데.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골이 늦게 터진

“이번 계기로 더욱 많은 골 넣겠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 득점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많은 골을 넣도록 노력하겠다.”

-상대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보통 골포스트를 지키는데, 오늘은 역습 위치에 있었다.

▲경기 때마다 바뀐다. 오늘은 하프백과 스피드가 골포스트를 지켰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강한 팀과 맞붙는 경우 오히려 공격 기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서로 이기려고 공격과 수비에 이 둘이 많은 것 같다. 지금은 축구를 하는 팀과는 확실히 다르다.

-최근 박주영과 이정용이 골을 넣었다. 좋은 활약을 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아주 잘하고 있다. 나도 매우 기쁘다. 박주영과 이정용이 잘하면서 한국 축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후배들이 유럽에 진출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2012년 전남 도민체전 구례서 열린다

오는 2012년 제51회 전남도민체육대회가 관공제, 휴양의 거점도시 구례에서 개최된다.

구례군은 “지난 1일 열린 전남도체육회 제239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2012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구례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1회 도민체전이 2012년 4월에 3박4일간 구례공설운동장에서 18개 종목 6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열리게 된다.

구례군이 도내에서 인구 3만이 안되는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은 서기동군수와 이광택 부군수를 비롯해 체육회 등 민·관이 하나 되어 지역 특색인 친환경 녹색체전을 부각시켜 적극

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게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은 이번 도민체전 개최지가 결정됨에 따라 체전추진기획단과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장 시설 정비와 군민 화합·질서·친절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기동 군수는 “군민의 오랜 바람과 노력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됐다”며 “2012년 개최되는 제51회 도민체전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꾸며, 도민 스포츠추진 한마당이 되도록 모든 군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최경주 '아깝다 톱10'

PGA파머스오픈 15위 그쳐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아쉽게 톱10에 진입하지 못했다.

최경주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토리파리나 골프장 남코스(파72·7천56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아냈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도 적어내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친 최경주는 공동 15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경주는 비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지난 해보다 드라이버샷과 아이언샷이 한층 안정되면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증심사 입구에 산악연수센터 추진”

광주시체육회 정가맹 승인
산악연맹 최 경 주 회장



등 상설등산학교도 개설할 계획이다”고 연수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 등반계획에 대해선 “오는 7월에 타지키스탄에 있는 8천m급 산에 광산연 구조대를 파견할 예정이다”면서 “또한 세계 각국의 등반대가 몰려드는 시기여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산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가맹 단체 승격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광주 종합산악연수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최근 광주시체육회 정가맹 단체 승인된 광주시산악연맹(이하 광산연) 최경주 회장이 31일 승격 소감과 함께 연맹 최대 역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또 “광산연의 정가맹 승인은 전국체전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이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바뀌는 과정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광주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광주연맹도 적극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산악연수센터에 대해서 최 회장은 “증심사 입구에 3천평 규모의 대지를 물색 중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의 중”이라며 “연수센터가 세워지면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유치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등산 교육

축구협, 남아공 월드컵 승리 기원 '슬로건' 공모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는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 KT, 다음, 대표팀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와 함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는 슬로건을 공모한다.

공모를 통해 확정되는 슬로건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한국 대표팀 버스 외벽에 새겨지며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가의 타이틀로도 사용된다.

슬로건 공모는 오는 10일까지 현대차 인터넷 홈페이지(www.hyundai.com)와 판매점, 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 인터넷 포털 다음(www.daum.net) 등으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되는 슬로건은 3월3일로 예정된 월드컵 D-100일 기념행사 때 응원가와 함께 공개된다. 슬로건에 선정되는 공모자는 남아공 월드컵 한국-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 입장권과 항공권, 숙박권 각 두 장씩, 2등 2명은 1차전 입장권과 항공권 각 한 장씩을 받는다. /연합뉴스



2일(화)

▲V리그 여자배구(현대건설 : 도로공사) (16 : 45·SBS스포츠), (KT&G : 흥국생명) (16 : 45·KBSN SPORTS)

▲V리그 남자배구 (KEPCO45 : LIG손보)(19 : 00·SBS스포츠), (삼성생명 : 대한항공)(18 : 40·KBSN SPORTS)

3일(수)

▲프리미어리그 21R (울 시터 : 첼시) (04 : 30·SBS스포츠)

이집트 네이션컵 3연패

‘파라오의 후예’ 이집트가 2010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나의 추격을 뿌리치고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집트는 1일(한국시간) 앙골라 루안다의 아크라 스포츠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

에서 후반 40분에 터진 모하메드 게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이집트는 지난 2006년 대회와 2008년 대회에 이어 대회 사상 최초로 3회 연속 우승 위업을 이뤘고 통산 7번째로 정상에 올랐다.

반면 가나는 1982년 대회 이후 28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했으나 이집트의 벽에 막혀 통산 네 번째 우승 기회를 놓쳤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단 한변이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운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온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방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기도 모른다면 즉 “낯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시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복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가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초급	32부터 매주 (목)14-17시	(월)19-22시	150000원	230-7700-3
평생교육원	관상학심화	35부터 매주 (목)19-22시	(월)19-22시		
동강대학교	시주명리학초급	310부터 매주 수요일(15주)	(월)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심화	311부터 매주 목요일(15주)	(월)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조기등록 120-2.5까지 등록시 해당수강료 10%감면
정기등록 2.1-2.19까지, 동강대 정기등록 1.25-2.27까지

등록방법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공용기판 입금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시주·관상 개인교습 실시!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기차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차 사용합니다

- 비 전기로 약 5,000원 정도도 부담이 적음
- 최신의 6배터리를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속의 4선제를 일체형인 A/S가 가능합니다.
- 경기저라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거래보증, 1년 기차 5년 상환, 연리 3%
- 속력시 40km/회(이제와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한라 HALLA Weltech Corp.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대표·성 불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조양(100% 지분) 대표이사인사
전 조양(100% 지분) 대표이사인사
전 조양(100% 지분) 대표이사인사
전 조양(100% 지분) 대표이사인사
전 조양(100% 지분) 대표이사인사
전 조양(100% 지분) 대표이사인사

해령법률경매 사원 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동산구	18554	141㎡	1억1천	11월
	서구	157483	111㎡	8천5백	11월
대구	중구	1171/1327	111㎡	11억1천	11월
	서구	157483	111㎡	8천5백	11월